

채용비리 임원 명단 공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7월 4일까지 “공운법 시행일 9월 28일 전에 완료 키로”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명·나이·주소 등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리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임원의 비위행위로 횡령·배임·뇌물 등 금품수수행위, 성범죄, 채용비위, 조세 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

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명, 나이, 주소, 직급,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채용비위 행위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방식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공기관 장에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응시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비리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됐을 때 그 합격이나 채용의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6일부터 7월4일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인 9월28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연금 수령기간·금액 조정하면 절세 효과

금감원, 미수령 연금지출 안내 강화

#은퇴를 앞둔 A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 동안 연금지출의 연금수령을 통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일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문에 A씨는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으로 바꾸고 부족한 생활비는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연금 수령금액과 수령기간을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가입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연금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지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연금지출액 672만8000개(121조8000억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여기서 28만2000개(4조원)은 미신청계좌였다.

미신청계좌의 대부분 은행 계좌로 66.4%(18만7000개)를 차지했다.

적립금으로는 생명보험사가 41%(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이 34.2%(1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입자가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등의 유불리를 비교해 수령시기를 연기한 경우 등이 꼽혔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수령방법 등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 관련 현황을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겐 연금수령 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기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캠코, 99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30일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8건을 포함한 995억원 규모, 62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평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316건 포함됐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발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30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뉴시스

친환경차 ‘인기’ ... 연비·혜택 ↑

SK엔카닷컴, 1~4월 친환경차 등록 전년비 20% ↑ 베스트셀링카는 그랜저HG 하이브리드·ES300h

중고차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동차 유통 플랫폼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친환경차들은 최근 1년새 거래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친환경 모델의 등록대수 역시 3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다. 친환경 모델 조회수 역시 7만2000건으로 3% 증가했고, 평균 판매기간은 지난해 40일에서 34일로 단축됐다.

모델별로는 그랜저HG 하이브리드가 약 500대로 가장 많은 매물을 기록했다.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300h가 약 400대로 가장 많이 등록됐다. 특히 ES300h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가 늘어났다.

모델별 조회수 기준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국산차는 3500건 조회된 쉐보레 올 뉴 말리부 하이

브리드였다. 수입차 중에서는 전기 슈퍼카 BMW i8이 약 70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차 최초의 친환경차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모델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며 전년 대비 등록대수가 200대 이상에서 100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가장 빨리 팔리는 모델은 쉐보레 볼트 EV로 평균 6일의 판매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규 SK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장은 “최근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 속에 친환경차 박람회가 개최되는 등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높은 연비는 물론 각종 보조금, 세제 혜택도 있어 친환경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블루홀 자회사 펍지 에픽게임즈에 소송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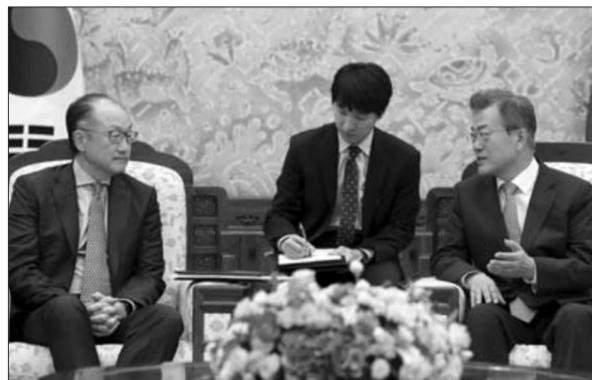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펍지주식회사가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에픽게임즈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얄 모드를 선보여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펍지 관계자는 “올해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소송을 걸게 됐다”라며 “소송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이후 국내외 다수의 게임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배틀로얄 장르의 세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최근 출시한 모바일 버전도 한국 출시 첫날 다운로드 수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세계은행 총재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 2017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가 헌법과 국가개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감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심의한 뒤 4월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

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기재부로부터 넘겨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 18일 기재부에 결과를 송부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다.

/뉴시스

정상회담 취소에 금값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예정이던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후 안정자산인 금값이 뛰기 시작했다.

CNBC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직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직후 1% 이상 급등한 온스당 1305달러에 거래됐다.

미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최고경영자(CEO)인 레이 달리오의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북미 관계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금에 투자하라고 권고했었다.

달리오 CEO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두 명의 대결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지도자가 서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세상은 두 명 중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혹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만일 상황이 나쁘게 진행된다면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